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역할행동과 내외통제성,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과의 관계*

The Study of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Style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in Early Childhood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전공
박 사 이 종 신**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 수 문 혁 준***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Doctorate : Lee, Jong-Shin
Associate Professor : Moon, Hyuk-Jun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nal-external control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of mothers as factors that affect mothers's parenting style of young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228 mothers of preschooler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productive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ositive mother's parenting style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internal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other hand, positive mother's parenting style ha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external control and depression. In addition, negative mother's parenting style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external control and depression. On the other hand, negative mother's parenting style had no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nal control. Psychological well-being had the strongest effect on positive mother's parenting style and external control had the strongest effect on negative mother's parenting.

▲주요어(Key Words) : 어머니 역할행동(mother's parenting style), 내외통제성(internal-external control),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우울 (depression)

Ⅰ. 서 론

어머니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 자녀의 발달시기마다 그 욕구충족을 위한 어머니 역할은 매우 강조되어 왔다. Erikson에 의하면 어머니와 자녀는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고 한다(Bigner, 2002). 그러므로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주요 발달 과업이면서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과정으로, 효과적인 어머니 역할은 자녀의 발달과 성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성숙하게 만든다(김은정 등, 2006).

특히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 자녀가 최초로 접하는 환경인 어머니는 자녀가 영아기를

* 본 논문은 2010년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주 저 자 : 이종신 (E-mail : prayerjjs@hanmail.net)
*** 교신저자 : 문혁준 (E-mail : mhyukj@unitel.co.kr)

거쳐 아동기 초기에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유아의 성격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cker, 1964).

어머니의 역할행동은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어머니로서의 태도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박성연 · 이숙, 1990; 이경애, 2009), 그동안 양육행동으로 연구되어 왔다. 양육행동은 자녀 양육 시 보이는 어머니의 행동방식으로 이러한 양육행동을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인 역할로 보고 자녀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행동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은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특히 어머니의 양육역할이 영향을 준다(박성연 등, 2009; 이정란, 2003).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독립성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할수록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를 더 잘 표현하였으며(이혜련 · 최보가, 2000), 어머니의 합리적인 지도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습태도가 긍정적(김경미 · 안선희, 2010)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에게 긍정적인 역할행동을 보일 경우 자녀의 안정애착은 높게 나타나며, 어머니가 거부적인 역할행동을 보일 경우 자녀가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보인다(전효정, 2003; 한태숙 · 황혜정, 2010). 아울러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시 나타나는 어머니의 역할행동의 질이 유아의 또래관계(박주희, 2000; 정지나 · 이영, 2006, Domitrovich, 1993)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온정적이고 민감한 어머니 역할행동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부정적인 여할행동은 부정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강압적인 훈육방식은 유아에게 덜 긍정적이고, 어머니가 유아기 양심발달에 중요한 역할(조은영 등, 2010, 홍경선, 2004)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역할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자녀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이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문혁준, 2005; 서기남 · 문혁준, 2008; 이성복 · 신유림, 2010; Belsky, 1984; Bronfenbrenner, 1977; Crinic & Greenberg, 1990; Eiden et al., 1995; Shumow & Lomax, 2002; Suchman & Luthar, 2001).

자녀의 특성이 어머니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는 자녀의 기질, 자아개념, 과잉행동 및 정서행동문제 등의 연구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어머니에게 더 많은 요구를 통해 양육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문제아동의 어머니는 문제를 보이지 않는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더 비판적, 덜 온정적, 더 억압적인 역할행동을 보이며, 자녀가 과잉행동을 보이는 경우 어머니가 과도한 통제행동을 보인다(권혜경, 2002; 김명자, 1992; 서민정 등, 2003; 이경화, 1991; 함경숙, 1981; 황혜정, 1997; Anderson et al., 1986; Becker, 1964; Lytton, 1990; Sears, 1965).

그러나 어머니 역할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내적인 요인을 고려(Abidin, 1990; Belsky, 1984)해야 하고, 어머니의 심리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음(Luster & Okagaki, 1993)을 지적하고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요소는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복지감, 우울 등의 연구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역할행동을 나타내고(송아람, 2006),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설명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촉진 역할행동을 많이 보임(김은진, 2009; 박서연, 2007)이 보고된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부적절한 역할행동을 많이 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움(문경주 · 오경자, 1995; 백종화, 2008; 정미경, 2003)을 나타낸다. 아울러 어머니의 우울은 역할행동을 통해서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체로 우울한 어머니의 경우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부적절한 역할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돌봄이 낮고 과보호가 높은 것이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Parker et al., 1979), 이러한 우울증은 아동기 동안 부모의 부정적인 평가, 애정의 철수 같은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Crook et al., 1981). 즉 우울한 어머니들은 아동을 통제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아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감으로써 갈등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아동의 요구를 받아주거나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적절한 타협을 하지 않은 채 갈등상태로 끝나버리는 등 부적절한 역할행동을 많이 한다(Downey & Coyne, 1990; Fendrich et al., 1990). 즉, 심리적으로 건강한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경쟁성, 독립심을 양성시키기에 필요한 긍정적 역할행동이 제공(Belsky, 1984)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간은 동일한 환경자극에서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각자가 느끼는 행복감이 다르다. 이는 내외통제성(이승희 · 장임원, 1990)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Phares (1957)에 의해서 최초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Rotter(1966)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 내외통제성은 성취, 애정, 사회적 기대, 정치적 태도 등의 하위영역을 포함하여 성인의 내외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제작되었고, 내외통제성 변인과 그 관련 심리적 변인에 관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철섭, 2007; 박영호 · 유영애, 2001; 이명자, 2007; 이훈구, 1997; 조설희, 2005; 한미정, 2001; Ducette & Wolk, 1973).

또한 Glasser(1998)는 그의 선택이론에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개인이 자신을 통제하느냐 아니면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느냐에 의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와 외부통제(external control)를 구분한다. 즉, 내부통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생각이나 행동을 의미하고, 외부통제는 한 개인이 타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 타인을 강요하고 통제하려는

생각이나 행동을 의미한다(박재황 · 김순업, 2004).

Glasser(1998)는 또한 인간은 적절한 선택을 통하여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내부통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선택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 강요하고 통제하는 외부통제는 종교, 문화, 정치, 인종, 성, 경제적 계층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지내기가 어려울 때 사용하고 있는 심리로, 우리 삶의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외부통제행동으로 비판하기, 비난하기, 불평하기, 잔소리하기, 위협하기, 벌주기, 통제를 위해 보상해주기 등의 일곱 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들고 있다.

이러한 외부통제와 반대되는 내부통제는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타인보다는 자신을 통제하며 외부통제에 대한 대안적 행동으로 지지하기, 격려하기, 경청하기, 수용하기, 신뢰하기, 존중하기, 협상하기 등의 일곱 가지 관계형성습관을 들고 있다(박재황 · 김순업, 2004).

따라서 Glasser(1998)의 내외통제성은 대인관계에 관한 신념으로, 내부통제와 외부통제가 각각 독립적이며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서 외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어머니로 하여금 부정적 역할행동을 적게 하고 긍정적 역할행동을 촉진하게 함을 예측하게 한다.

어머니 역할행동과 내외통제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Rotter(1966)는 내외통제신념이 어느 정도 일반적, 사회적으로 모델링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역할행동과 내외통제성 신념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Davis와 Phares(1969)는 내적통제소재를 보이는 아동은 부모가 더 수용적이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덜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외적통제소재를 보이는 아동은 부모가 일관성 없는 벌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김종희(1983)는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그들의 통제소재와의 관계 연구에서 긍정적인 어머니 역할행동은 아동의 내적통제소재의 발달을 위한 기본적 자세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역할행동과 내외통제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어머니의 역할행동과 자녀의 내외통제성의 인과관계를 보고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어머니의 내외통제성이 어머니 역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머니의 역할행동과 내외통제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어머니의 역할행동은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낸다(김지신, 1996).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이론적으로 연구된 것은 최근의 일로, 17세기만 해도 엄격한 훈육 및 처벌이 가장 효과적인 역할행동이라고 여겨졌으며 18세기에 들어와서 소아의학 및 심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역할행동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역할행동에 대한 변화와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다(Freud, 1952, 김미숙, 2005, 재인용). 20세기 초반에는 행동주의 양육이론에 의해 부모가 엄격한 계획 하에 자녀를 양육할 것이 권고되었고, 20세기 중반 무렵 정신분석이론이 대두되면서 아동의 능력에 맞게 기다리며 부드러운 태도로 양육할 것이 강조(유효순 · 지성애, 2004; 정현숙 등, 2002)되었다. 이와 함께 학자들 사이에서 부모역할행동에 대한 척도개발과 역할행동의 유형과 자녀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현미숙, 2004; Baumrind, 1966; Schaefer & Bell, 1958).

Symonds(1949)는 양육태도를 '수용-거부'와 '지배-복종'의 두 차원으로 보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과 부모가 자신의 의지대로 자녀를 지배하는 차원인 두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Rohner와 Rohner(1981)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육행동을 애정차원과 통제차원이라 하였고, 조복희와 동료(1999)들의 한국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에서 온정과 통제차원으로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김은정과 그 동료들(2006) 또한 유아기 자녀의 특성이나 발달단계에 따른 요구 및 특성에 기초하여 정서적 공감행동, 긍정적 존중행동 및 합리적 권위행동을 긍정적 차원으로, 강압적 성향과 완벽주의적 성향의 부정적 차원을 포함한 역할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역할행동을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하며, 먼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이 어머니의 역할행동과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구성된 어머니 역할행동에 심리적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차원에 상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내외통제성 변인과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변인의 영향이 어떠한가를 밝힘으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긍정적인 역할행동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 역할행동과 내외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내외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 우울이 어머니의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어머니의 내외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 우울이 어머니의 긍정적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어머니의 내외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 우울이 어머니의 부정적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변인이 어머니의 역할행동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국공립보육시설(28개소)에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2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유아의 연령은 만 3세 40명(17.5%), 만 4세가 82명(36%), 만 5세는 106명(46.5%)으로 구성되었고,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13명(49,6%)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 115명(50.4%)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183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104명(45%), 전문대졸이 65명(28.5%),고졸이하 59명(25.9%)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을 살펴보면 301만원 이상 소득이 102명(49.1%)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취업유무에서는 취업 어머니가 126명(55.3%), 비취업 어머니가 102명(44.7%)로 취업 어머니가 조금 더 많았다.

2. 측정도구

1) 부모역할행동 검사

어머니 역할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김은정, 김영아, 김유진, 문수종(2006)이 개발한 부모역할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긍정적 차원의 정서적 공감행동, 긍정적 존중행동, 합리적 권위행동 3영역과 부정적 차원의 강압적인 성향, 완벽주의적인 성향 등 2영역으로 총 5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를 검사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낮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2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는 각 하위영역별로 정서적 공감행동 .77, 긍정적 존중행동 .88, 합리적 권위행동 .72, 강압적 성향 .69, 완벽주의적 성향 .73로 전체 .79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228부를 통하여 하위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시 직교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28문항이 5가지 하위영역으로 묶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항 구성은 긍정적 차원으로 '나는 아이를 자주 안아주고 좋아한다는 표현도 자주 한다', '나는 아이와

<표 1> 유아의 일반적 특성 (N=228)

변 인	구 분	유 아 n=228(100%)
연 령	만 3세	40(17.5)
	만 4세	82(35.9)
	만 5세	106(46.5)
성 별	남아	113(49,6)
	여아	115(50.4)

<표 2>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228)

변 인	구 분	어머니 n=228(100%)
연 령	30세 미만	5(2.2)
	30~40 미만	183(80.3)
	40세 이상	40(17.5)
학 력	고졸 이하	59(25.9)
	전문대졸	65(28.5)
	대졸 이상	104(45.6)
월 소득	200만원 이하	46(20.2)
	201~300만원 이하	70(30.7)
	301~400만원 이하	46(20.2)
	401만원 이상	66(28.9)
취업 유무	취 업	126(55.3)
	비 취업	102(44.7)

서로 감정이 통할 때가 많다' 등의 정서적 공감행동 5개 문항, '아이가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그 이유를 궁금해 하며 아이의 생각을 물어 본다', '아이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편이다.' 등의 긍정적 존중행동 12문항, '음식점에 등에서 아이가 소란스런 행동을 하면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제지 한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한다' 등의 합리적 권위행동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부정적 차원으로는 '아이가 잘못하면 손부터 올라간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가 내 말을 들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혼을 낸다' 등의 강압적인 성향 3문항과 '내 계획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내 머릿속에는 아이의 발달과 관련된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 등의 완벽주의적인 성향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해당영역의 행동특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내외통제성 검사

본 연구의 내외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Glasser(1998)의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박재황과 김순업(2004)이 제작한 내부-외부통제(internal-external control) 척도이다. 내부통제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편이다', '내가 행복 하느냐 불행 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12문항, 외부통제를 측정하는 문항은 '내 주변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나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편이다', 등의 23문항으로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행동특성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내부통제 .79, 외부통제 .84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 심리적 안녕감 검사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54문항을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문항분석을 통해 46개 문항으로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정적 문항 수 24문항과 부적 문항 수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수용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삶의 목적 7문항, 환경에 대한 지배력 7문항, 자율성 8문항, 개인적 성장 8문항 등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적으로 동의안함(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6점)으로 6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자아수용 .77, 환경지배력 .78, 긍정적 대인관계 .77, 자율성 .61, 삶의 목적 .72, 개인적 성장 .69로 전체 .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4) 우울검사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척도는 성격평가질문지에서 추출한 우울관련 24문항을 사용하였다. Morey(1991)가 제작한 성격평가질문지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는 김영환 등 (2001)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특히 이 질문지는 1994년 이후 임상적 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4판(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Ⅳ: DSM-Ⅳ)체계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8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3. 조사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임의표집 하여 만3세부터 만5세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배부·회수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기기입식 조사방식으로 본 연구를 위한 검사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와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9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33부(89%)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설문에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은 5부를 제외하고 228부(87%)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α를 계수하였고, 어머니역할행동검사의 내적타당도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 역할행동과 내외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계수를 산출하였고,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이 이어머니의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의 내외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어머니 역할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먼저 긍정적 어머니 역할행동과 내외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내부통제성과의 관계는 정적상관($r = .39, p < .001$)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내부통제가 높을수록 긍정적 역할행동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 외부통제와의 관계는 부적상관($r = -.19, p < .01$)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외부통제가 높을수록 긍정적 어머니 역할행동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는 정적상관($r = .54, p < .001$)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어머니 역할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부적상관($r = -.46, p < .001$)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긍정적 어머니 역할행동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부정적 어머니 역할행동과 내부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부통제성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외부통제성은 정적상관($r = .32, p < .001$)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외부통제가 높을수록 부정적 역할행동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도 내부통제성과 같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정적상관($r = .19, p < .01$)으로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부정적 어머니 역할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심리적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부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정적상관($r = .64, p < .001$)으로 내부통제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통제성과 우울의 경우 부적상관($r = -.48, p < .001$)으로 내부통제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외부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에도 부적상관($r = -.46, p < .001$)으로 외부통제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외부통제성과 우울의 경우 정적상관($r = .45, p < .001$) 외부통제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2.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이 어머니의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이 어머니의 긍정적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이 어머니의 긍정적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5이하(1.3~2.5)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단계적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표 4>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긍정적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내부통제성과 외부통제성은 제외되었으며, 심리적 안녕감($\beta = .436, p < .001$)과 우울($\beta = -.162, p < .05$)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긍정적 어머니 역할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되는 변량 31%($R^2 = .31, p < .001$)중 심리적 안녕

<표 3> 내외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어머니의 역할행동과의 관계 (N=228)

변 인	1	2	3	4	5	6
긍정적 역할행동	1					
부정적 역할행동	-.15*	1				
내부 통제성	.39***	-.01	1			
외부 통제성	-.19**	.32***	-.35***	1		
심리적 안녕감	.54***	-.09	.64***	-.46***	1	
우 울	-.46***	.19**	-.48***	.45***	-.68***	1

*p<.05, **p<.01, ***p<.001

<표 4> 어머니의 긍정적 역할행동에 대한 내외통제성,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의 단계적 회귀분석 (N=228)

	독립 변수	B(SE)	β	R^2	$\triangle R^2$	F
1	심리적 안녕감	.32(.03)	.548***	.30	.30	96.74***
2	심리적 안녕감	.26(.04)	.436***	.31	.01	51.42***
	우 울	-.13(.06)	-.162*			

*p<.05, ***p<.001

<표 5> 어머니의 부정적 역할행동에 대한 내외통제성,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의 단계적 회귀분석 (N=228)

	독립 변수	B(SE)	β	R^2	$\triangle R^2$	F
1	외부 통제성	.55(.10)	.32***	.10	.10	26.38***
2	외부 통제성	.61(.12)	.35***	.10	.00	13.70***
	심리적 안녕감	.07(.07)	.07			
3	외부 통제성	.56(.12)	.33***	.12	.01	10.29***
	심리적 안녕감	.16(.08)	.16			
	우 울	.20(011)	.15			

***p<.001

감의 설명력(R^2=.301, p < .001)이 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이 1%($\triangle R^2$=.01, p < .05)로 나타났다.

2-2.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이 어머니의 부정적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표 5>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부정적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으로 내부통제성은 제외되었고, 심리적 안녕감, 우울변인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반면, 외부통제성(β= .336, p < .001)은 유의미한 변인으로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설명변량은 약 12%(R^2=.12, p < .001)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1.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과 어머니의 역할행동과의 관계

먼저 긍정적 어머니 역할행동과 내외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부통제성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내부통제가 높을수록 긍정적 역할행동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외부통제성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외부통제가 높을수록 긍정적 어머니 역할행동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김현화, 1991), 가족구성원들의 욕구와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제한된 가정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며(장윤옥, 1997), 사회적 문제해결과 정적인 상관관계(이형초 · 최정윤, 1993)를 보고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내적인 힘이 강할수록 일상생활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증대함으로 가족과 가족이 처한 문제해결을 높이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서도 어머니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 자녀의 입장을 공감하며 수용해 주는 긍정적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반면 어머니의 사고와 감정에 의해 어머니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제하고자 할 때 자녀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통제행동이 어려움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어머니 역할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긍정적 어머니 역할행동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선행연구(백설아, 2004; 양영주, 2005, 이병례 · 한세영, 2007)와 유사하며, 민성혜와 동료들(2007)의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애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즉, 어머니의 감정은 곧 어머니의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심리적 안녕감과 만족도 등의 긍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긍정적 역할행동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정서표현 또한 상대방에게 더욱 반응적이고 관심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할수록 긍정적인 역할행동이 감소되어 자녀에게 덜 민감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긍정적 역할행동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생활의 만족감을 높게 하는 동시에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낮출 수 있는 정서적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부정적 어머니 역할행동과 내외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부통제성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외부통제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외부통제가 높을수록 부정적 역할행동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양육 상황에서 어머니가 내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행동은 자녀를 통제하는 부정적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머니가 자신의 기대대로 자녀를 통제하고 만들어 가고자 할 때 강압적인 부정적 역할행동이 높게 나타남을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이는 결과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서로 독립적임을 보여주는 선행연구(Diener & Emmons, 1984; Emmons & Diener, 1985; Watson & Clark, 1984)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두 정서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앞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을수록 긍정적 역할행동을 높게 보이는 결과와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함에도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완벽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자녀를 강압적으로 대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역할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바른 시각형성과 자녀를 이해하는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우선임을 인식하게 한다.

다음으로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정적상관으로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부정적 어머니 역할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사고와 행동을 유발하며(Beck, 1967), 부모로서 덜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경향(Downey & Coyne, 1990)과 자신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고(Dix, T., & Meunier, I. N. 2009), 아이에 대한 정서적 관여가 줄어들고, 손상된 의사소통을 하는 등 부모역할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김정란 · 이은희, 2007)는 보고와 동일하다. 또한 우울한 어머니인 경우 아동을 통제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의 행동을 회피하거나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등 부적절한 역할행동을 보이는 선행연구(김미성 등, 2005; Ciccetti & Toth, 1995; Fendrich et al., 1990)들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을 과소평가 하고, 또한 자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적게 가질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어머니 역할행동을 줄이기 위해 어머니의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방안모색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이 어머니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2-1.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이 어머니 긍정적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내외통제성, 심리적 안녕감, 우울이 어머니의 긍정적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심리적인 안녕감이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내적 요인 중에서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외통제성 보다는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적 안경감과 우울의 심리적 요인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 중에서도 심리적 안녕감이 상대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역할행동을 나타낸다는 송아람(2005)의 결과와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설명적 양육행동과 자율성을 촉진하는 역할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은진, 2009; 박서연, 2007)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김은진(2009)의 연구와 동일하다. 이는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긍정심리(김인자, 2006; 김희중, 2007; 남인숙, 2007; 이종신, 2009; Seligman, 2004; Seligman & Csikszentamihalyi, 2000; Watkins, Grimm & Hailu, 1998)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긍정심리는 어머니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정서적 공감을 통한 긍정적 역할행동을 증진시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긍정심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지방안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2-2. 어머니의 내외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 우울이 어머니의 부정적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이 어머니의 부정적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 상태인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외통제성 중에서 내부통제성 또한 유의미함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내외통제성 중 외부통제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과 내부통제성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서로 독립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우울의 경우 부정적 역할행동과 정적관계를 보인 결과와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과잉보호, 지시/통제, 거부/적대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민성혜 등, 2007)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애착이나 우울은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밝힌 김미성과 동료들(2006)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어머니가 가진 비합리적 사고가 부정적인 역할행동을 매개한다고 보고한 이정윤과 장미영(2009)의 보고와 유사하다. 또한 선택이론에서 외부통제성을 보이는 사람은 자녀와 잘 지내기가 어렵고, 어머니의 삶의 불행의 원인(박재황 · 김순업, 2004)이라는 보고와 사람의 스트레스 크기가 외적 통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적통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스트레스 크기보다 크다고 보고한 배성애(1999)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외부통제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보고(이종신, 2009)와 맥을 같이한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역할행동은 심리적 상태인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조절하는 내부통제성 보다 어머니가 자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 강요하고 통제하는 외

부통제성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긍정적 역할행동과 달리 어머니의 부정적 역할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폭넓은 양육지식 등을 함양함으로 바람직한 어머니 역할행동을 하도록 돕는 어머니 교실과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과의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 등을 통해 외부통제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에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어렵다. 어머니 역할행동은 발달단계 상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자녀의 개인적 욕구표현이나 발달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양한 연령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표집연구가 필요하며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와 기타의 기관을 포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 역할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을 살펴보았는데 어머니 역할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과 대인관계에 중점을 둔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어머니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환경 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에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역할행동을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나누어 어머니의 내외통제성, 심리적 안녕감, 우울 등의 각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긍정적 차원의 역할행동을 함에 있어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안녕이 우선으로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정서가 편안한 상태일 때 자녀를 더욱 긍정적으로 대하며 합리적인 어머니 역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정적 역할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정서 상태 보다는 어머니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의도에 맞게 자녀를 통제할 때 자녀를 비판적으로 대하는 부정적 역할행동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임으로 긍정적 어머니 역할행동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권혜경(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형성.**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경미 · 안선희(2010).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8(1),** 15-26.

김명소 · 김혜원 ·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5(2),** 19-39.

김명자(199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인성특성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미성 · 이순복 · 전귀연(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2(1),** 39-56.

김미숙(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영환 · 오상우 · 임영란 · 김지혜 · 홍상황(2001). PAI(Standardization Study of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표준화연구. **한국심리학회, 20(2),** 311-329.

김은정 · 김영아 · 김유진 · 문수종(2006). 부모역할행동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4),** 219-232.

김은진(2009).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인자(2006). **긍정심리학.** 서울: 물푸레.

김정란 · 이은희(2007). 중년여성의 불안정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해동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9(2),** 297-319.

김종희(1983). 아동의 내외통제신념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4,** 11-12.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철섭(2007). **기독교인의 내외통제성 수준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 의 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현화(1991).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희중(2007). **긍정심리와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남인숙(2007). 행복감계발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이론학회, 31,** 217-320.

문경주 · 오경자(1995).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4(1),** 41-55.

문혁준(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민성혜 · 김지현 · 정지나(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동 억제/활성화 성향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9,** 41-63.

박서연(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성연 · 박응임 · 한세영(2009). 아동양육방식. **아동학회지, 30(6),** 15-28.

박성연 ·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박영호 · 유영애(20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1(2),** 342-373.

박재황 · 김순업(2004). 내부-외부 통제 척도 개발. **좋은인간관계, 2(1),** 62-79.

박주희(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백설아(2005).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배성애(1998).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들에 관한 탐색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백종화(2008). **우울 및 비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서기남 · 문혁준(2008).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제(DAP)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기 양육경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23-40.

서민정 · 장은진 · 정철호 · 최상용(2003).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8(1),** 69-81.

송아람(2006).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태도의 관계가 유아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양영주(2005).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만족도 비교 연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유효순 · 지성애(2004).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이경애(2009). **자폐아동어머니의 부모역할수행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경화(1991). **부모참여에 관한 유아교육 전공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명자(2007). **고등학생의 신체존중감, 내외통제성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병례 · 한세영(2007). 취업모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1(1),** 19-35.

이성복 · 신유림(2010). 어머니 거부/방임적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및 보육 경험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28(3),** 73-80.

이승희 · 장임원(1990). 일부 실업계 여고생들의 불안 및 내외통제성 성향에 관한 연구. **중앙의대지, 15**(3), 297-306.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 및 관련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윤 · 장미영(2009).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계 : 자녀 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이종신(2009). 긍정심리 및 내외통제성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7(4),** 37-48.

이형초 · 최정윤(1993). 통제소재와 사회적 문제해결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2(2),** 152-160.

이훈구(1997). **행복의 심리학.** 서울: 법문사.

이혜련 · 최보가(2000).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성이해와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5),** 1-14.

장윤옥(1997). 가정자원, 통제소재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87-300.

전효정(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메카니즘: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정미경(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정지나 · 이영(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한국아동학회지, 27(4),** 65-80.

정현숙 · 유계숙 · 어주경 · 전혜정 · 박주희(2002). **부모학.** 서울: 신정.

조복희 · 이진숙 · 이홍숙 ·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조설희(2005). **Rotter와 Glasser의 내외통제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조은영 · 도현심 · 김민정(2010).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 **한국가정학회지, 28(5),** 235-249.

한미정(2001).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죽음불안의 발달적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태숙 · 황혜정(2010).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정서성, 부부갈등 및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0(5),** 99-118.

함경숙(1981).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및 인지적 특성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현미숙(2004). **아동 부모교육·상담을 위한 부모역할지능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홍경선(2004).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황혜정(1997). 아동의 정서 · 행동문제와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 **교육심리연구, 11(3),** 331-350.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Anderson, K., Lytton, J. & Rommey, D. (1986). Mothers interaction with normal and conduct- disordered boys: Who affects Whom?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04-609.

Baumrind, D. (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887-906.

Beck, C.(1967). *Depresso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Y., Harper & Low.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1.* NY: Russel Sage Foundation.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igner, J. (2002).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6th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Cicchetti, D. & Toth, S. (1995).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disorders of In D. Cicchetti &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3,* 87-137.

Cri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Crook, T., Raskin. A. & Eliot, J. (1981).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dult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2,* 950-957.

Davis, W., Phares, E., J. (1969). Parental antecedent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Reports, 24,* 427-436.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Dix, T. & Meunier, I. N. (2009). Depressive symptoms and parenting competence: An analysis of 13 regulatory processes, *Developmental Review, 29,* 45-68.

Domitrovich, C. E. (1998).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 The mediating role of child perceptions of parents and pe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Ducette, J. & Wolk, S. (1973). Cognitive and Motivational Correlates of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420-426.

Eiden, L. D., Teti, D. M. & Corns, K. M. (1995). Maternal working model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6,* 1504-1518.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89-97.

Fendrich, N., Warner, V. & Weissman, M. M. (1990)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0-50.

Glasser, W. (1998). *Choice theory: A new psychology of personal freedom.* N.Y.: Harper Perennial.

Luster, T. & Okagaki, L. (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ytton, H. (1990). Child and parent effects in boys' conduct disorder: A re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83-69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Phares, E. J. (1967).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New Jersey: General Learning Press.

Rohner, R. P. Rohner, E. C. (1981)Parental acceptance rejed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al codes, *Ethnology, 20,* 245-260.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

cal Monographs, 80(1), 1-28.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Sears, R. R. (1965). The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3,* 637-648.

Schaefer, E. S. & Bell, R. Q. (1958). Development of a parent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 *Child Development, 29*(3), 339-361.

Seligman M. E. (2004). Can happiness be taught? *Daedalus, 133,* 80-87.

Seligman M. E. & Csikszenta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Shumow, L. & Lomax, R. (2002). Parental efficacy: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outcom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2), 127-150.

Suchman, N. E. & Luthar, S. S. (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 285-315.

Symonds, P. M. (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Y.: Bureau of publications.

Watkins, P. C., Grimm, D. L. & Hailu, L. (1998). Counting your blessings: Grateful individuals recall more positive memory. Paper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Denver, CO.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 475-490.

□ 접 수 일 : 2010년 11월 15일
□ 심 사 일 : 2010년 12월 03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2월 24일